

전문 불자복지사 양성 '발등의 불'

불교복지인력 연구소

□ 수탁위주 사업, 인력양성 '필요성 못느낀다'
6월 현재 불교복지법인의 시설수탁의존률은 89.6%(103곳). 이는 개별 시설법인을 뺀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전국 단위 법인인 조계종·천태종·진각종·총지종의 산하시설 115곳에 대한 위탁시설 비율로, 이들 법인 절대 다수가 자기 시설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는 수치다. 불교복지가 그간 정부나 지자체로부터의 시설 위탁에 치중한 사업을 벌여왔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수탁위주의 불교복지 사업 전개는 불교복지 인력양성 시스템에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작용했다. 대부분이 위탁·운영시설이다보니 불교복지 프로그램 개발은 물론 운영 자체도 힘들게 되고, 심지어 불자복지사 채용할 필요성까지 못느끼게 되는 원인이 됐다.

더 심각한 문제는 불교적인 자체 복지마인드가 형성되지 않아, 불교복지의 전문성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결과가 초래됐다.

덕없이 부족한 종립대 사회복지학과 수도 불교복지 인력양성에 제약이 되고 있다. 불교종립대에서 사회복지사를 배출하는 곳은 동국대 경주캠퍼스, 동국대 불교대학원 및 행정대학원, 위덕대, 중앙승가대, 율해 개교한 금강대 등 총 6곳. 이들 교육기관에서 매년 100여 명이 졸업, 6~70%의 취업율을 보이고 있지만, 정착이 중 불교복지시설로의 유입은 평균 50%대에도 못 미치고 있다.

반면 천주교 11곳, 개신교 50여 곳의 대학에서 매년 쏟아져 나오는 사회복지사는 무려 3천여 명으로, 이들 3명 중 2명이 천주교·개신교 복지시설로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경북 B복지관은 위탁·운영하고 있는 스님은 "수탁제인 해당 지자체로부터 지나친 행정 간섭을 받고 있는 처지에 종사자까지 불자들을 우선시해서 채용한다면 인사문제가 생긴다"며 "이차피 불교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운영하지 못하는 상황이다보니, 아예 지역사회의 인력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종교와 관계없이 지방대학 출신자를 고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 불교복지사, 왜 양성해야 하는가

이유는 간단하다. 불교복지 전문성 제고에 있다. 이는 불교사상에 근거한 복지사업을 충실히 펼칠 수 있는 불교복지 인력의 원활한 공급 차원에서 요구되고 있다.

특히 불교복지의 정체성 확보에 가장 현실적 방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불교복지사업이 단순한 '자선사업'이 아닌 불교사상에 입각한 사회복지

불교복지가 그간 양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불교적 마인드를 갖춘 사회복지사가 급격히 양성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는 최근 들어 복지법인들이 사업방향을 자체 시설 건립으로 전환, 자기 프로그램 개발과 설립 이념에 필요한 인력을 육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에서 불교계의 중점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기존의 주역구식의 인력양성시스템을 이번 기회에 뜯어고쳐 불교복지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일선현장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왜 불교사회복지사를 양성해야 하는가. 그 필요성과 불교복지 인력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해 본다.

	복지부 등록 전국 단위 종교복지법인		
	불교	천주교	개신교
전체시설 수	115곳	620곳	2,000여 곳
종사자 수	1,820여명	8,928명	30,000여명
종사자 종교 일치율	48%	65.4%	8~90%

6개 대학서 연 100명 졸업... 교계취업 50%

천주교·개신교 경우 61개 대학서 매년 3천여명 배출

대학·법인·종단 참여 인재풀 가동 바람직



◇동국대 사회복지학과 학생(좌)이 개별 가정을 방문, 상담실습을 통해 현장 경험을 쌓고 있다.

전달체제로 구축하는데 핵심 역할을 담당할 동력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유는 불교복지시설 종사자의 불교신자 비율과 타종교 복지시설에서의 종사자 종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지가 전국 단위 불교복지법인 4개의 산하시설 종사자들의 불교신자료를 조사한 결과, 총 종사자 1,820여명 가운데 불자는 48%(870여 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는 산하 시설 620곳의 전체 종사자 8,928명 중 65.4%(3,093명)가, 개신교는 3만여 종사자 중 7~80% 정도가 신자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서울카톨릭 사회복지법인 박종민 총무부장은 "천주교 복지지는 자체 건립 시설이 75.8%에 달해 설립 이념에 따른 자기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었다"며 "종사자를 선발할 때 신자들을 우대해 뽑았기 때문에 천주교 신도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인력양성 순환시스템' 만들어야

대학, 법인, 종단 등이 참여하는 불교복지 인력 활용을 위한 인재풀이 가동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는 '교육-채용-취업 알선' 등이 순환되는 불교복지 인력양성 시스템으로, 인적 자원의 저변 확대를 위한 단계별·통합적 접근 방식이다. 그간 개별적인 이들 기관의 활동을 '예비 사회복지인력' 양성 차원에서 집중, 유기적인 관계를 모색하는 것이다.

불교계 복지법인 가운데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한 곳은 진각복지재단이다. 복지인력양성 3원 체제를 구축 시스템은 위덕대가 사회복지학과 커리큘럼에 불교사회복지론, 불교사회복지세미나 등 관련 과목 4강좌를 개설해 복지인력 양성 전 단계를 책임지고, 진각복지재단은 이들을 우대 채용하는 한편 진각종은 위덕대 복지재단과 대학 사이에

서 취업알선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종사자를 위한 불교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다. 서울노인복지센터는 신입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3개월 과정의 불교기초강좌를 수강토록 배려하고 있고, 상주냉림복지관은 월야정진 법회를, 사회복지 승가원도 종사자 불교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이호걸 총무부장은 "불교사회복지사 양성시스템 구축은 불교복지의 질적·내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만큼 핵심이 되는 과제"라며 "시설운영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중간관리자급도 포함한 '불교복지인력은행'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NGO 활동가가 쓰는 현장칼럼

김순연
곰두리네 집
총무



미움도, 성냄도 벗어놓고

모자라고 힘들게 해도 '필요한 짝'

부족한 부분 메워주며 서로 아껴



등나무 넝쿨이 푸른 그늘을 만들어 주는 빨간 벽돌의 단층집. 하루 종일 투명명 아크릴 천장 위에서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을 들여다보면 해가 슬그머니 서산마루로 물러서면 정신지체 1급인 '장하다'가 제일 먼저 통학 버스로 달려간다. 그러면 그에게 뒤지지 않을 세라 또 다른 아이들이 불편한 다리를 이끌며 달려가고, 통학거리며, 옆에서 넘어지는 소리. 그 소리에 맞춰 곰두리네집 노란색 통학버스가 부르릉 시동을 건다. 곰두리네 집 하루의 문은 이렇게 시끌벅적한 소리로 닫힌다. 오늘도 무사했다는 소리이다. 가슴을 쓸어내려야 되는 시간이다.

어제다 손님이 방문하여 상담 때문에 잠시 현관문 잠그는 것을 잊으면 그새 '재민'이가 없어지고, '대원'이도 사라져 등사무소로 비상이 걸리고, 곰두리네 집 식구들은 골목골목 찾아다니며 마음이 새까맣게 타 들어간다. 장애인주간보호소인 곰두리네집 아이들은 모두 정신지체아이기 때문에 잠깐이라도 방심을 하면 거리로 뛰쳐나가 일주일. 그래서 할 수 없이 일과 중에는 현관문을 잠그는 것인데, 우리 집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문을 잠금 놓고 뭐 하느냐'고 따져 묻는다. 마치 우리가 장애인 학대라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을 하는 눈초리다. 억울하고 답답하지만 아이들 안전이 최

우선이니 우리들이 받는 오해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정신지체아들이라고 해서 전혀 사회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같은 또래의 아이가 질질하게 싸놓은 풍을 지나가면 아이가 모르고 밟으면 선생님도, 친구도 때릴 듯이 달려든다. 그럴 때면 너는 훌륭한 아이라고 말해서 오히려 싸는 아이와 짝을 지어주고, 화 잘 내는 아이에게 반대로 말 잘 안 듣는 친구를 짝으로 지어 줘 인내심을 발휘하게 한다. 부족한 부분을 조금 더 부족한 부분으로 메워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더욱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있을 자리에 언제나 있어야 하는 아이들. 풍 싸는 아이도 있어야 하고, 화 잘 내는 아이도 있어야 하고, 말 잘 안 듣는 아이도 있어야 한다. 서로가 서로에게 짝이기 때문에 어느 한 쪽도 없으면 안 된다. 몸이 아파도 결석하는 아이가 있으면 곰두리네 집 퇴원은 곧 흐트러진다.

잠시도 조용한 순간이 없는 아비규환의 소란 속에서도 제각각의 신발을 신겨주며 해맑게 웃는 아이들. 내 가정의 자녀나 동생들에게 곰두리네 집 아동들에게 쏟는 정성 반만 들여도 대통령을 만들어 낼 수 있지 않을까. 미움도 벗어놓고, 성냄도 벗어놓고, 불심으로 뛰노는 아이들.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오늘도 부처님의 가피를 빌어본다.

「육임래정비법 수정본안본」과 그 「휴대용」 발간 안내

■ 육임을 알때와 모를때의 차이점은 이렇습니다.

모를때 : 「... 무슨 일로 찾을까 --?」 알 때 : 「응, () 일 때문에 왔구나!」	모를때 : 「... 왜 일이 꼬였을꼬 --?」 알 때 : 「응, 전사귀(戰死)가 참범해서 꼬이네군!	모를때 : 「왜 병이 생겼을꼬 --?」 알 때 : 「응, 사기맞고 말을 못해 병이 되었구나!
--	--	--

■ 육임을 알면 이외 에도 지금 이 사람이 「무슨 귀신의 침범을 받고 있는지, 「무슨 부정발미가 붙었는지, 「누구 산소에서 탈이 났는지, 「어떤 위해를 받아 병이 생겼는지, 「지금 무슨 사정으로 그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를 미리 알게되고 해소법을 쓰게 됩니다.

■ 육임을 알면, 또 「어떤 방위로 몇 일날 이사 시켜야 형편이 펴질지, 「문은 목적사가 언제 이루어 질지, 를 분명하게 말해주게 됩니다.

■ 먼저 말해 줄 내용은 앞면에 20여가지로 그날 만나는(전화문)시간마다에 써져 있고, 문은 항목은 24가지로 뒷면에 딱 결정되어 있습니다.

■ 이 책 나온지가 3년이고, 만일할 수정본안되어 그 정확도가 검증되어 있으며, 日語版까지 나와 일본에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은 내용을 먼저 말할 수 있게 되려면 육임10년을 공부해야만 될 것이나, 공부하지 않아도 쉽게 정확한 말을 할 수 있게끔 해놓은 책이어서 가격이 좀 비쌌습니다.

■ 이 책을 써보면 그 효과가 아주 커서 여러 측면의 도움이 있다는 것이 검증되어 있습니다.

■ 활인 천역자가 꼭 구비해 두어야 할 보서(寶書)임을 알려 드리는 바입니다.

육임래정비법 수정본안본 : 값 2,500,000원

계좌 : 우리 813-041583-13-101 김영란 도서출판 북문

휴대용 : 값 310,000원(각旬별 전6권 150×105×20mm)

- 육임래정비법 350,000원
- 육임래정비법 수정본안본 2,500,000원
- 육임래정비법 휴대용 310,000원
- 육임래정비법 수정본안본 일어판 272,000원
- 육임강의록 상 하 증보판 410,000원
- 육임 신수비결 300,000원
- 육임비요 형이상법 150,000원
- 육임운명 판단법 130,000원

▶ 주문전화 02)993-8680

- 육임세밀 정단법 100,000원
- 육임 비디오 강의(28개) 900,000원
- 육임래정비법 수정본안본 CD(ARA21 제휴) 2,000,000원
- 공익법인 한국육임학회 부설 육임학당 호사숙 강의 접수중 (현 제6기)1,500,000원
- ▶ 등록후 3개월 수강하고 회원육임고급강의를 본인의 의사에 따라 매주 수요일 마다 오후 5시부터 3시간씩 계속 무료 수강하게 됩니다.

강호제현께 알리는 말씀

효사 본인과 록평 김상연 선생과 한때 작은 오해가 있었으나 우리 두사람은 그런 오해를 불식 하고 육임학의 발전을 위해 공동 헌신 노력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록평 선생은 사주(四柱)공부를 훌륭히 하고서 좋은 책을 많이 만들어 후학들에게 큰 공헌을 기친 분이고, 나 역시 이분의 저서를 많이 본 후학으로서 존경심을 가져 왔다. 종교와 학문은 상호 대립속에서 발전 되어 왔다는 것을 여러분께서도 잘 알 것이다. 발전은 항상 기존의 인식을 달리하는 새로운 도전에 의해 선물 되어졌다. 김상연 선생도 그렇게 육임신단극비전을 냈고 나도 그런 정신으로 육임래정비법을 썼다. 한 개인의 소망적 노력은 반드시 후학들에게 어떤 형태로이든 귀감을 얻게 해 준다는 점에 있어 나 는 록평 김상연 선생께 크게 감사 드리는 바이다.

효 사